써 먹는 재무제표를 위하여





지하식 세무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법학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주요경력
-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2001-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세무회계 강사(2006-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및 세무회계강사(2002-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감사 (2012-현재)
-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 감사(2013-현재)
- 서울인쇄조합 세무고문(2013-현재)

e. tax0246@naver.com
m. 010-3350-0246

회사가 작성하는 가계부와 같은 것을 회계라고 한다. 가정과 달리 회사의 회계장부는 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세무서가 있고, 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출을 해 주는 기관인 은행이나, 신용보증관련 기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그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 내가 투자를 받아야 한다면 투자자나 주주도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결론을 낸다면 회사의 회계정보는 사장님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 대출기관, 투자자, 직원 등 다양하게 요구하는 자료일 수 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서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열에 아홉의 사장님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기 위한 자료로 만들고 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 된다"이 문구에 적합한 회계정보를 만들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사업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써먹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자, 차분하게 회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어떻게 써 먹을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한 회사가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의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한 결과물을 가지고 재무제표라고 한다. 즉,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란 뜻이다. 이 재무제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E
- 자본변동표

이 중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위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합계잔액시산표나 제조원가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무제표는 단연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다.

재무제표의 결산을 언제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은 법인사업자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결산을 완료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료하게 된다.

그런데 다음연도 3월말이나 5월말에 전기말까지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전기말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써먹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아울러 3월말과 5월말 전에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써 먹는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는 그 회사의 회계기간 말(12월31일) 현재의 재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즉,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알 수 있는 표이다.

자산 : 미래의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내다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유동자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부채 : 갚아야할 채무를 말한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뉜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은 유동부채이고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것은 비유동부채이다.

자본 :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아래의 회계잘몰라인쇄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자.

이 회사의 사장님은 2014년에 운전자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아래의 재무제표가 결과물로 나왔을 때 과연 대출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은 받을 수 없다" 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회사의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50,000,000원이 발생했다. 사장님들은 흔히 손익계산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익이 났는데 대출을 못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무상태표인데 그것을 볼 줄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재무상태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과 부채와 자본총계를 먼저 보아야 한다.

회사의 자산은 1,005,000,000원 갚아야 하는 부채는 1,105,000,000원, 주주의 몫인 자본총계는 100,000,000원이다. 이른바 자본잠식 상태이다.

회사가 현재 상태에서 폐업한다면 부채를 자산을 팔아서 갚아야하는데 그 부채를 다 갚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므로 주주가 가져갈 돈은 하나도 없게 된다. 빌려 주어봤자 갚을 능력이 전무한 회사에 돈을 빌려 줄 리가 만무하게 된다. 이른바 "자본잠식상태"라고 한다. 다음 호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 살펴보아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무상태표

회계잘몰라인쇄주식회사(2013. 12. 31.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자산	**300,000,000**	**Ⅰ. 유동부채**	**560,000,000**
1. 당좌자산	200,000,000	1. 매입채무	100,000,000
가. 현금과 예금	100,000,000	2. 지급어음	50,000,000
나. 매출채권	100,000,000	3. 단기차입금	400,000,000
2. 재고자산	100,000,000	4. 기타	10,000,000
가. 상품과 제품	50,000,000	**Ⅱ. 비유동부채**	**545,000,000**
나. 재료	50,000,000	1. 임대보증금	20,000,000
Ⅱ. 비유동자산	**805,000,000**	2. 장기차입금	
1. 투자자산	10,000,000	3. 기타충당부채	
2. 유형자산	790,000,000	4. 기타	
가. 토지	100,000,000	부채 총계(Ⅰ+Ⅱ)	1,105,000,000
나. 건물	150,000,000	**Ⅲ. 자본금**	**100,000,000**
다. 기계장치	500,000,000	Ⅳ. 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50,000,000)	200,000,000
라. 공구, 기구	10,000,000	자본 총계(Ⅲ+Ⅳ)	100,000,000
마. 차량운반구	20,000,000	부채 및 자본 총계 (Ⅰ+Ⅱ+Ⅲ+Ⅳ)	1,005,000,000
바. 기타	10,000,000		
3. 기타 비유동자산	0		
가. 임차보증금	5,000,000		
자산 총계(Ⅰ+Ⅱ)	1,005,000,000		

